

# 內藏山, 그 겨레의 名山

金 鶴

정읍(井邑)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고장이다. 역사의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 마한시대(馬韓時代)로부터 터딤음이 비롯된 유서깊은 고을이 정읍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內藏山)이며, 아름답고 숭고한 정한(情恨)을 간직한 정읍사(井邑詞), 그리고 멋과 흥겨운 가락으로 구성된 전라도 농악(全羅右道農樂)의 발원지가 바로 정읍이다. 어디 그 뿐이던가. 벌써 백년 전, 제폭구민(除暴求民) 보국안민(補國安民)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갑오동학 농민혁명(甲午東學農民革命)의 발상지가 바로 정읍이기도 하다. 고귀한 문화예술의 숨결이 배어있고, 역사의 물줄기를 굽이쳐 흐르게 바로잡으려 했던 민초들의 함성이 메아리를 울렸던 곳이 바로 정읍이기도 하다.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이자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이며, 산자수명한 사계절 관광도시이고, 발전과 번영이 기대되는 미래의 도시요 희망의 도시가 곧 정읍이다.

돌하 노피곰 도드사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디를 드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가논디 점그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정읍을 떠올리면 절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정읍사(井邑詞)다. 국문학 사상 가장 오래된 가요일 뿐 아니라, 백제 유일의 작품인 이 정읍사는 백제여인의 기다림의 미학을 노래한 걸작이다.

정읍인들이 뜻을 모아 최근에 정읍사 공원을 조성하여 가꾸고, 정읍사 문화제를 연례행사로 열며, 망부상(望夫像)을 세워 기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도심의 산책에서 벗어나 발길을 국립공원 내장산으로 옮겨보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은 소백산맥에서 갈라진 노령산맥이 호남평야의 북판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빗어낸 명산이다. 예로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일컬어져 온 내장산은 남원의 지리산, 영암의 월출산, 장흥의 천관산, 부안의 변산과 더불어 호남 5대명산으로 손꼽혀 오고 있다. 내장산의 옛이름은 영은산, 그런데 조선 명종때 회묵대사가 이 산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당초의 영은사란 절 이름을 내장사로 고쳐 부르면서부터 산이름마저 내장산으로 바뀌

게 되었다고 역사는 전한다.

총면적이 76.032km<sup>2</sup>인 내장산은 주봉인 해발 763m인 신선봉(神仙峰)을 비롯하여, 연자봉·장군봉·서래봉·불출봉·까치봉등의 등성이 동쪽으로 뻗어가면서 말발굽형을 이루어 마치 철옹성의 요새를 방불케 한다. 이 내장산의 자태는 가을철의 단풍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하지만 내장산이 어찌 단풍 뻗이던가.

봄이면 개나리와 벚꽃의 화사함이 여름이면 질푸른 녹음이, 가을이면 천자만홍의 단풍이, 겨울이면 설경이 관광객의 눈길을 부여잡는다. 그러기에 오늘의 내장산은 사계절 관광지로서 연중무휴 사람으로 붐빈다.

내장산은 철따라 옷을 바꿔입는다. 그것 만으로도 내장산은 아름다움과 멋을 뽐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 말할 수는 없다. 천연기념물 91호인 사향노루 217호인 산양 242호인 까막딱따구리 243호인 검독수리 등을 가슴에 품고 있어 천연식물원이자 천연동물원으로서도 단연 금수강산의 으뜸이라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도 이나무·예덕나무·찰피나무등의 희귀식물과 비단벌레·남방노랑나비 등의 곤충도 내장산에서나 상면이 가능하니 이 아니 자랑이라.

내장산은 가슴이 넓은 여인이다. 동식물은 물론 기암괴석과 갖가지 문화재를 가슴에 담백하고 있으니 말이다.

백제 무왕 37년(636) 영은조사가 영은사로 창건하여 오늘의 내장사로 개칭한 대가람을 비롯하여 백양사·구암사등의 명찰과 천진암·원적암·도덕암·약사암·운문암·청류암·벽련암등의 산사에서 향내처럼 바람에 문혀 번지는 염불 소리는 속세에서 찌든 중생들의 귀를 밝혀주고 마음밭에 불심(佛心)의 씨앗을 뿌려준다. 또 기름바위·갯바위·홀바위·학바위·신선대·금선대 등의 기암을 보노라면 바위를 주물러 빚어낸 조물주의 예술성에 저절로 머리를 조이리게 된다. 금선·약수동·남창·원적·추풍·백암·떡땀·홍류동 등의 계곡과 금선·도덕·요수·

몽개·금강·내인 등의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 소리는 산새들의 지저귀와 더불어 교향악이 되어 속인으로 하여금 세심(洗心)의 경지에 이르게 해 준다.

백양사의 극락보전·소요대사부도·대웅전·사천왕문·내장사의 이조동종 등의 문화재에서'는 조상들의 지극한 신앙심과 예술혼을 엿볼 수 있으며, 입암산성지와 명은사지·백련암지에서는 세월의 무상을 곱씹으며 선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해 낼 수도 있으리라. 내장산은 웅숭깊어서 그런지 동굴도 여러개가 있다. 용굴·영천굴·호랑이굴 등이 그것이다. 이 동굴은 익산의 천호동굴과는 비록 구조가 다르지만 그 나름의 전설을 머금은채 내장산 탐방객의 땀방울을 닦아준다.

내장산에 발을 딛고 서면 아스라히 잊혀졌던 역사의 뒀안길이 떠오른다. 내장산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 싶어서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왕조실록은 춘추관·충주·성주·전주 등 4대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나머지는 다 불타버리고 전주사고에 보존하던 실록만이 난을 피해 오늘에 이르렀다. 전주사고에 보존되던 실록은 왜구의 침입때 내장산의 용굴암·은적암·비래암 등으로 옮겨 보관하였기에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기록의 역사로서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장산이야말로 사라질 뻔 했던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켜낸 호국의 산이 아닌가. 내장산은 마치 병아리새끼들을 날개쪽으로 감싸안으며 솔개의 습격에 대비하는 어미닭의 자랑스런 위용 같다고나 할까.

## 1. 봄

골안개 스쳐가듯  
풀리는 물소리

숨결인 양 훈훈히  
슬리는 솔소리

羽化亭 해맑은 못물에  
어려젯는 산 그늘

## 2. 여름

시냇물도 한더위를  
숲 속에 숨어 사는가

그리운 나그네를  
남 몰래 얼어 두고

그리도 못다한 정을  
속삭이는 밀어들

## 3. 가을

안으로 여민 가슴  
외로 타던 불길에

덩달아 피붉은  
나무도 이파리들

이름이 산이요, 단풍이지  
요란스런 꽃이여

## 4. 겨울

골마다 쌓인 눈길  
임자 없이 가는 바람

순정기 외로움을  
산노루 슬피 울어도

동짓달 정든 밤이사

## 제멋대로 깊어라

이쯤에서 내장산의 사계(四季)를 읊은 이기반 시인의 「내장산」이란 시 한 수를 되뇌어 보는 것도 무의미 하지는 않을 게다.

내장산을 오르는 등산코스는 13개다. 내장사 쪽에서 6개, 백양사 쪽에서는 7개코스가 있다. 가장 짧은 코스는 내장산 일주문에서 백련암—원적암—내장사—일주문으로 되돌아오는 자연탐방로인데 3.6km의 거리에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반대로 가장 긴 코스는 관사입구를 출발하여 유군치—장군봉—연자봉—신선봉—까치봉—연지봉—망해봉—불출봉—서래봉—월영봉—송이바위를 거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로로서 13.8km의 거리인데 9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내장산을 제대로 오르려면 이 코스가 제격이다. 이 능선일주 코스는 아마추어로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등산준비를 철저히 하고 경험이 많은 리더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려니 싶다.

현대는 등산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을 즐긴다. 새벽마다 앞산이나 뒷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일과처럼 여겨지고 있다. 또, 주말이면 가깝고 멀고를 따지지 않고 산행(山行)을 한다. 산의 높고 낮음도 가리지 않는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에 구애 받지 않는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산을 찾는다. 건강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며, 자연에 문혀 호연지기를 기르고 싶어서 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해마다 산의 키가 줄어들고, 산의 옷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밟는 산이 되고, 가꾸는 산이 아니라 어지럽히는 산이 되어서 그러는 모양이다. 산이 몸살을 앓게 되는게 정상적인 현상이 되다싶이 하고 있다. 오죽하면 산의 자연 휴식년제를 시행할 것인가.

등산을 좋아하는 K씨는 내려오기 위해 산에 오른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소속한 등산클럽의 이름도 하산회(下山會)라고 작명을 했단다. 역설

적인 듯 하지만 공감이가 가는 이야기다.

아무리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산마루에 올랐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내려오지 못하면, 그건 성공적인 등반일 수 없는 일이다. 영원히 산에서 머물기 위하여 산에 오르는 사람은 없다. 안전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산행(山行)은 조난일 수밖에…….

등산을 인생살이에 비유하는 이들이 있다. 한 발짝 한 발짝 정상을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은 누구나 그 나름의 인생목표에 다가가려는 몸부림이나 다를 바 없다. 산마루를 향하여 오르노라면 뜻하지 않게 미끄러지는 수도 있고,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기도 하며, 벌에 쏘이기도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불행이란게 따지고 보면 산행에서 부딪치는 고난이나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목표가 천차만별이듯 산의 높이도 저마다 다르다. 세계 최고봉을 오르려는 이가 있는가 하면, 뒷동산의 봉우리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이도 있으리라.

높은 산에 오르든 낮은 산에 오르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든 낮은 자리에 오르든 안전하게 내려올 줄 아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적 거리다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내려오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동서고금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들은 내려오기 위하여 산에 오른다는 철리(哲理)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하여 산에 오른다.” 아무리 되씹어 보아도 수궁이가 가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철따라 자태를 바꾸는 내장산을 오르며 이 등산의 철리를 음미해 본다면 금상첨화이리라. 내장산은 산행을 꺼리는 이들도 마다하지 않고 가슴으로 안아준다. 내장사 일주문에서부터 사찰 입구까지 길옆 양편 사열 받듯 도열한 단풍나무 터널을 거닐며 동반자와 더불어 담소를 나누어도 좋다. 또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리며

밧을 내려다 보거나 머리를 좌우로 도리질하며 산록을 굽어보는 것도 빼놓 수 없는 장관이다. 철따라 천변만화하는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도 혹 아쉬움이 남거든 상가지역으로 내려가 산채백반에 곁들여 정음야주 몇 잔 마시면 절로 여독(旅毒)이 가시리라.

내장산을 찾으려거든 미리미리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정갈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천변만화의 경관을 보아서 즐거운 눈이고, 자연과 자연이 빛는 소리의 교향곡을 들어서 기꺼울 귀이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탄성을 쏟아내야 할 입이고, 사바세계에서 묻은 속세의 온갖 찌꺼기를 씻어내게 될 마음인 까닭이다.

시방도 내장산은 어서 오라고, 어서 달려오라고 손짓해 부르고 있다. 혼자서도 좋고 떼거리면 더욱 반겨할 것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희귀한 동식물, 선인들의 손길이 머문 문화재, 청정심을 가꿔주는 사찰들, 푸짐한 먹거리 등을 가슴 가득 품고 있는 내장산은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즐겨 찾고 있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사랑할 내장산은 영원히 이 겨레의 명산으로 남아있으리라.

#### ▲ 필자소개

月刊文學 新人作品賞 當選 文壇데뷔  
KBS 全州放送 總局 編成部長(現)  
韓國隨筆賞, 全北文學賞, 全北隨筆文學賞  
全北 道文化賞(文學) 受賞  
著 書 : 밤의 旅路 ① ②  
철부지의 사랑연습  
춘향골 이야기  
好好婦人